

지식산업센터 내 웨딩홀 '논란'…북구 안이한 대응 '혼란'

건물 입주자·하객 주차장 이용 뒤섞여 혼잡 우려에도 “개관 가능” 답변 용도변경 허가 전 계약자 모집 알고도 대처 안해 예비부부들 피해 초래 아파트형 공장, 입지 부적절…북구 “교통대책 마련 안되면 미승인 방침”

광주시 북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메리포엠' 첨단 웨딩홀이 돌연 개관을 취소하면서 예비부부들의 혼란(광주일보 1월 13일자 6면)이 빚어진 가운데, 예조 예식장이 들어서기 적절하지 않은 입지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관할청인 광주시 북구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먼저 인허가를 내주고 문제는 사후 보완하겠다”는 행정 편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북구는 또 해당 업체측이 지난해 11월께 용도변경 허가가 내려지기 전부터 계약자 모집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해 10월 메리포엠 첨단 웨딩홀 업체측의 예식장 조성에 따른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받고 업체측에 “예식장 개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과 사무실 등이 입주하는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원칙적으로는 기업과 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음식점, 기숙사 등 시설만 입점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3년 3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종별로 용도변경을 해 다른 업종도 입점할 수 있게 됐다.

업체 측은 이같은 점을 들어 북구 연제동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2지구 내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20층에 예식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0층(연면적 8만1063㎡) 규모로 센터 내 기업 대상 사무실만 477실, 상가(근린생활시설) 88실을 갖췄고 인접한 기숙사 용도의 건물에도 200개의 주거 공간이 마련된 상태였다.

북구는 이 과정에서업체 측에 지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 예식장 입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만 수천여명이 몰리는 예식장 특성과 보유 주차장 면적, 인근 교통 혼잡도 등을 고려해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검토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북구 안팎에서 나온다.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면 입주 기업과 인근 주민들 교통 불편이 불가피했고 인근 지역까지 교통 혼잡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지식산업센터 일대는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짙은 지역으로 광주시가 지난해 초 발표한 ‘2024 교통관련 기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식산업센터 인근 연제교차로의 하루 PCU(승용차 환산 교통량)는 12만6299대에 달했다.

광주 전체 교차로 86곳 중 19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로, 웬만한 나들목(고속도로 진출입로)이나 도심 주요 교차로보다 높다.

해당 업체의 본점이 위치한 무역회관 건물 일대 도 교통량이 상당하다. 2024년 말 본점이 들어서기

전부터 예식장으로 활용돼 온 이 일대의 같은 해 하루 PCU는 광주여대 사거리 19만1092대(교통량 상위 5위), 상무교차로 19만929대(6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그러나 예식장 입점 예정지(연면적 2133㎡)가 교통영향평가 대상(문화 및 집회시설 3000㎡ 이상)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주차장 확보 여부도 관련 기준(문화 및 집회시설 100㎡당 1대)에 충족한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건물 주차장의 경우 건물 내 691대, 옥외 16대, 전기차 전용 8대 등이 전부다. 예식장을 운영 하려던 업체 측은 기준 주차장 외에 별도 주차공간 확보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북구가 예식 1회당 최소 200여명의 인원이 모이는 점, 30분~1시간 간격으로 예식이 줄줄이 열리는 점, 해당 주차장을 건물 내 다른 호실 이용자들도 사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적극적인 교통 혼잡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검토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북구는 또 업체 측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허가만 있으면 입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개관 취소 결정을 내리기 이틀 전 서면으로 분양자 등의 동의서(결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계자는 “북구와 건축사 측에서 관련 기관의 허가만 있으면 입점할 수 있다고 장담해서 예약을 접수했다. 예제에 안된다고 하거나, 결의서 제출을 미리 요구했더라면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예비부부들께는 죄송하지만, 북구 행정 담당에 업체 측의 피해도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북구 관계자는 “용도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사용승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하니, 그 때 교통 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승인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산단 내에 위치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할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용도 변경을 임의로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완도 한 신협 임원선거 현금 살포 의혹

상임이사장 고발장 접수 수사

완도의 한 신협협동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현직 상임이사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도경찰은 지난 9일 완도의 한 신협 상임이사장인 A씨에 대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12월 25일 B 신협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인물들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신협 조합원들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등이 담긴 명부를 작성해 전달했으며 선거인이 될 조합원 1인당 20만원이 든

봉투를 함께 건네 금품 제공을 지시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앞서 A씨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B 신협 정기총회에서 차기 상임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는 해당 주장들과 관련해 B씨는 “현재까지 고발인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조합 내부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완도=정은조 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경찰이 또…무안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남경찰청 소속 경위 입건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무안경찰은 지난 16일 새벽 0시께 무안군 삼향

읍 남악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경찰청 소속 A(53)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경위는 차량을 몰다 인도를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위는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노로바이러스 예방 이렇게

19일 광주시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북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거울질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형광 검사 장비(뷰박스)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한밤 고속도로 역주행 충돌 사고 3명 부상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 역주행하던 SUV가 다른 SUV와 정면 충돌해 3명이 다쳤다.

19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9시께 순천시 서면 순천·완주고속도로(순천 방향) 10.7km 지점 1차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가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 40대 B씨, B씨의 딸 C(6)양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황전 나들목(IC)을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해 17여km를 정상 주행한 뒤, 서면교 일대부터 4km여 구간을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나기 전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